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를 방문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대학원생들에게 주요 시설과 서울시 주요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시민청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곳” 美 하버드 대학원생들 감탄

### “공직 맡으려면 희생정신 필요” 박시장 조언에 공감

“시민청은 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곳이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는지 궁금하다.”

21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 지하 1층 시민청.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내로 유적전시실, 공정무역가게, 시민갤러리, 시민발언대 등 시민청 곳곳을 둘러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공공정책과 대학원생 22명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며 감탄했다.

박 시장은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 집단지성을 통해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며 “시민운동가로 쌓은 경험을 녹여 시청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덴마크 출신의 한 학생은 “수도 코펜하겐이 지금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1,000년이 걸렸는데 서울은 짧은 시간

에 지금의 놀라운 성장을 이뤄 냈다”며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직에 몸담고 싶어 하는 차세대 리더들에게 조언을 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 박 시장은 “돈을 벌고 싶다면 비즈니스맨이 돼야 하지만 공직을 맡고 싶다면 투철한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

서도 헌신과 자기희생을 강조한다”며 “박 시장의 리더십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학생들과 가수 싸이 이야기를 하며 말춤을 춰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다음달 1일엔 미국 스탠포드대 MBA 과정 대학원생들과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시민청 찾은 하버드대 대학원생들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21일 신청사를 방문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정책대학원생 22명에게 신청사 모형을 보며 주요 시설 등을 설명하고 있다. 케네디스쿨은 매년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문화 등을 소개하는 '스터디 트렉'(Study Trek)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을 방문국으로 정해 서울시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방문한다. 이 자리는 대학원생들이 관심 있는 한국 인사 중 1명으로 박 시장을 꼽아 마련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민일보



박원순 시장,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대학원생에 시정 특강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1일 서울시 신청사 시민청을 방문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생 20여명을 직접 안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40분간 시민청 곳곳을 둘러봤다. 강희정 기자